

서울형 예비 사회적 기업, SR센터

조달호 연구위원 · dhcho@sdi.re.kr

정규진 연구원 · jkyujin@sdi.re.kr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창의시정연구본부

- 생생리포트에서 새롭게 시도되는 중소기업 탐방은 기술력 및 성장잠재력을 갖춘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성장과정과 해당 분야의 업종별 트렌드를 소개하고 해당 분야의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 기여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
-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재화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 예비사회적 기업(Preliminary Social Enterprise) :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 등 사회적 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상 인증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지만, 장차 요건을 보완하여 사회적 기업으로의 전환을 지향하는 조직(기업)
- 서울형 예비 사회적 기업 : 서울지역에 소재한 사회적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업(단체) 중 노동부의 인증조건을 만족하지 아니하더라도 사회목적의 구체적 실현 및 수익성 창출에 대한 성장가능성이 높은 경우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지정한 기업(단체)을 의미
- 취약계층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그밖에 노동부장관이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장기실업자 등을 말함

다보스 포럼(Davos Forum)으로 불리는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 창시자 클라우스 슈바브(Klaus Schwab)는 "세상에는 두 가지 자선의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마더 테레사 식이고 나머지 하나는 빌 게이츠처럼 재산을 지렛대로 삼아 최대의 많은 사람들을 돕는 것이다"라고 말했고, 앞서 언급한 자선의 방식 중 하나인 빌 게이츠는 2008년 다보스 포럼의 기조연설 '21세기 자본주의의 새로운 접근(New Approach to Capitalism in the 21st Century)'에서 창조적 자본주의로서 기업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데 중점을 둔 사업을 창출해야 하며, 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하면서 동시에 시장의 힘으로부터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을 개선시키는 두 가지 사명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이처럼 국내외 창조적 자본주의로서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노동고용부의 사회적 기업, 서울형 예비 사회적 기업과 지역풀뿌리형 사회적 기업 등 조금씩 다른 이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에코시티 서울을 위해 설립된 서울형 예비 사회적 기업 "SR센터(Seoul Resource Center: 이하 SR센터)"를 통해 알아보자.

1. 서울형 예비 사회적 기업의 의미: 더불어 사는 힘

지난해 6월 이명박 대통령이 주제한 제6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는 향후 사회적 기업을 중앙정부 주도형에서 지역·시장 친화적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고, 이어 열린 제7차 지역일자리 창출 전략회의에서 그동안 중앙정부가 인증하고 지원해왔던 사회적 기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육성하는 지역풀뿌리형 사회적 기업 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처럼 사회적 기업은 2007년 1월 제정된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기반으로 고용노동부가 이를 인증하는 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며, 2010년 1월 현재 전국적으로 501개의 인증된 사회적 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2009년 5월 제정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통해 지난해 2월부터 4월, 9월 3차에 걸쳐 총 252개의 서울형 예비 사회적 기업을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지역풀뿌리형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서울형 예비 사회적 기업 지원사업은 노동고용부의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 인증받지는 않았으나, 사회 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의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 서울 소재 예비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 육성하기 위하여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으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의 지정요건을 완화하여 1-3항의 조직형태, 영업활동, 사회적 목적 조항을 준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 서울형 예비 사회적 기업은 지역풀뿌리형 사회적 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준비하는 기업(혹은 조직)으로 향후 노동고용부의 요건을 충족하여 사회적 기업으로 출발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기업을 의미한다.

〈표 1〉 서울시 자치구별 (예비) 사회적 기업 분포

(단위 :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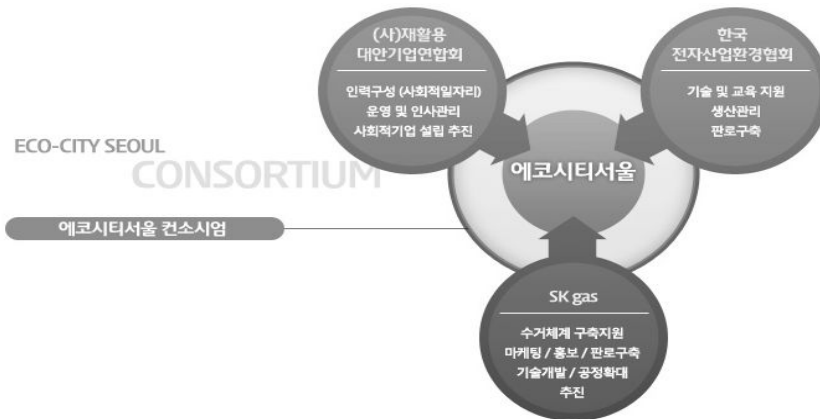
자치구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자치구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합계
종로구	9 (12.0)	33 (16.3)	0 (0.0)	42 (14.8)
중구	4 (5.3)	16 (7.9)	0 (0.0)	20 (7.1)
용산구	3 (4.0)	6 (3.0)	0 (0.0)	9 (3.2)
성동구	1 (1.3)	5 (2.5)	0 (0.0)	6 (2.1)
광진구	4 (5.3)	5 (2.5)	0 (0.0)	9 (3.2)
동대문구	1 (1.3)	0 (0.0)	0 (0.0)	1 (0.4)
종량구	1 (1.3)	2 (1.0)	0 (0.0)	3 (1.1)
성북구	0 (0.0)	2 (1.0)	4 (80.0)	6 (2.1)
강북구	4 (5.3)	4 (2.0)	0 (0.0)	8 (2.8)
도봉구	1 (1.3)	5 (2.5)	0 (0.0)	6 (2.1)
노원구	3 (4.0)	3 (1.5)	0 (0.0)	6 (2.1)
은평구	1 (1.3)	2 (1.0)	0 (0.0)	3 (1.1)
서대문구	2 (2.7)	6 (3.0)	0 (0.0)	8 (2.8)
마포구	9 (12.0)	18 (8.9)	1 (20.0)	28 (9.9)
양천구	1 (1.3)	5 (2.5)	0 (0.0)	6 (2.1)
강서구	1 (1.3)	9 (4.4)	0 (0.0)	10 (3.5)
구로구	4 (5.3)	10 (4.9)	0 (0.0)	14 (4.9)
금천구	0 (0.0)	4 (2.0)	0 (0.0)	4 (1.4)
영등포구	9 (12.0)	17 (8.4)	0 (0.0)	26 (9.2)
동작구	1 (1.3)	6 (3.0)	0 (0.0)	7 (2.5)
관악구	5 (6.7)	10 (4.9)	0 (0.0)	15 (5.3)
서초구	4 (5.3)	8 (3.9)	0 (0.0)	12 (4.2)
강남구	3 (4.0)	12 (5.9)	0 (0.0)	15 (5.3)
송파구	1 (1.3)	9 (4.4)	0 (0.0)	10 (3.5)
강동구	3 (4.0)	6 (3.0)	0 (0.0)	9 (3.2)
합 계	75 (100.0)	203 (100.0)	5 (100.0)	283 (100.0)

자료 : 신경희(2010), 서울시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10년 8월 기준)

II. SR센터 소개: 에코시티 서울을 위한 예비 사회적 기업

도시 광산화 사업의 주체

불과 5년 전까지 소형 폐가전제품은 당시 일반 시장에서는 경제적 가치가 없어 소각되거나 매립되었던 골치 아픈 존재였다. 일부는 불법으로 해외에 수출되어 제3국의 환경문제까지 야기하기도 했다. 전기전자폐기물의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에 따라 국내에서도 불법수출 규제, 폐기물의 생산자 책임 등 제도를 강화하기 시작했고, 국내에서는 최초로 적법처리 인허가를 갖고 있는 사단법인 재활용대안기업연합회 회원사들이 최대 가전 생산업체인 삼성전자와 협약을 맺어 수거된 전기전자폐기물을 처리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연합회는 버려지는 자원을 회수하고, 수익을 창출하면서 취약계층 일자리를 만드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고민과 정체성을 확립해왔다.* 이와 함께 녹색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이루기 위해 2009년 서울시는 재활용대안기업연합회에 ‘도시광산화 사업†’을 제안했고, 에코시티 서울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SR센터를 설립하였다. SR센터는 민간단체인 ‘에코시티 서울’ 컨소시엄이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사단법인 재활용대안기업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 주식회사 SK가스가 참여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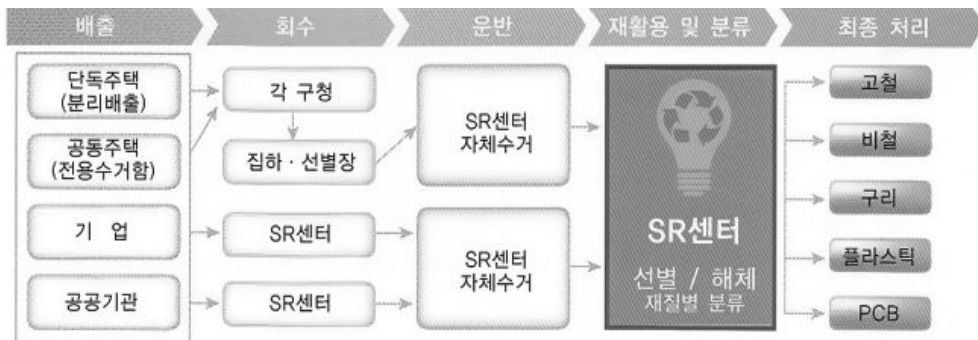
[그림 1] SR센터의 운영주체, 에코시티서울 컨소시엄

* 해피플러스(2010), 재활용대안기업연합회가 일군 사회적 기업의 가치와 성과, 행복나눔재단.

† 도시광산화(Urban Mining) 사업이란 1980년대 일본에서 나온 재활용 개념으로 도시에서 배출되는 휴대폰·컴퓨터 등 버려지는 폐가전제품에서 금·리튬·타이탄·코발트·니켈 등 값이 비싸고 국내 생산량이 많지 않은 희유금속을 추출, 재가공해 판매하는 친환경 자원회수 사업을 말한다.

녹색 서울을 위한 예비 사회적 기업

「서울시 자원순환센터 위탁운영 및 사회적기업설립등에 관한 협약」을 통해 2009년 12월 14일 설립된 SR센터는 서울형 예비 사회적 기업(제2010-0070호)으로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및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폐소형가전, 폐핸드폰, 폐OA기기 등을 수거한 후 분해 공정을 거쳐 자원화하고 있다. SR센터에 따르면 서울시민 한 사람이 1년에 배출하는 폐소형가전은 1.2kg, 서울시 전체에서 배출하는 폐소형가전은 한 달에 약 1,040톤, 연간 약 12,500톤으로 이를 매립하기 위해선 10,000m³ 매립장 10개가 필요하다고 한다. 2009년 서울시의 전체 폐전자제품은 회수가능량 1,228만대의 5%인 81만대만이 재활용되고 나머지 대부분은 매립, 소각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SR센터가 설립된 첫해인 2010년에는 약 116만대의 폐가전제품 및 폐휴대폰이 수거되어 처리되었다. 또한, 서울시의 폐기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비중은 전체의 12.5%에 이르고 있지만, SR센터의 도시광산화 프로젝트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도 감소돼 2010년 서울에서만 연간 67만 톤 이상의 CO²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림 2] SR센터의 폐금속자원의 적정처리 - ECOAS & Allbaro 시스템*

* Ecoas란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에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며, 그 폐기물을 적절하게 재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모든 사용자의 편의 및 효율적인 관리와 폐기물을 적절하게 상요하기 위해 구축된 체계를 의미한다. 또한, Allbaro란 폐기물의 배출에서부터 운반·최종처리까지의 전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폐기물의 발생억제(폐기물감량), 재활용(순환골재유통 정보), 적정처리(적법처리, RFID시스템)를 통한 폐기물의 전생애적 관리를 하나로 통합한 IT기반 폐기물 종합관리시스템을 말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향후 2012년까지 현재 수거되는 54만대의 휴대폰을 564만대까지, PC 7만대를 28만대까지, 가전제품 20만대를 424만대까지 자원화 할 계획이라고 한다. SR센터의 확장을 통해 이러한 계획이 성공을 거둘 경우, 2012년까지 생활폐기물의 90%이상이 자원화 돼 매년 서울에서 1,842억 원 가량의 경제효과 및 수입대체 효과, 8천여 명 이상의 고용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Ⅲ. 현장 인터뷰: SR센터 기획실장 이형출

유난히 추웠던 1월, SR센터 이형출 기획실장님의 인터뷰에 앞서 둘러본 작업장은 자원순환사업이라는 선입견과는 달리 깔끔하게 잘 정리되어 있었고, 외부인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조차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모두 자신이 맡은 업무에 집중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무심코 버려졌던 전자전기 폐기물은 여기 이 곳, SR센터에서 또 다른 자원을 생산할 수 있는 동력이자 사회적으로 소외되었던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또 수익금 기부를 통해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힘으로 전환된다.



[그림 3] SR센터 분해 작업 및 작업장 전경

* 헤럴드경제(2010), 서울내서 도시광산화 사업이 벌어진다.

사회적 기업의 안정된 고용구조 확립

‘빵을 만들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빵을 만든다.’ 는 여러 사회적 기업의 모토처럼 최근 서울 경제와 관련된 이슈는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이 으뜸이다. 서울형 예비 사회적 기업, SR센터가 지금처럼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철저한 교육훈련이다. SR센터는 설립 전 선발된 근로자 15명 모두 사회적 기업인 (주)에코그린에서 업무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6개월간 이수하도록 하여 설립 이후 업무와 관련된 큰 어려움이 없었다. 물론 초기 열악한 근로자의 생활기반과 낮은 임금으로 인해 그들이 하나의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안정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요구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센터 운영이 활성화되면서 저소득 취약계층의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늘어났으며 현재 SR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61명의 근로자 중 65%에 이르는 40명이 취약계층이다. 이형출 SR센터 기획실장은 “서울형 예비 사회적 기업과 서울 소재 사회적 기업의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취약계층이 (예비)사회적 기업에 보다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서울역 노숙자센터 ‘소중한 사람들’ 혹은 지역 자활원 등 여러 경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또한, (예비)사회적 기업은 자체적인 게스트하우스(Guest House) 운영을 통해 고용된 이들이 안정된 생활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림 4] SR센터 임직원(맨 우측에 이형출 SR센터 기획실장)

지난 12월 27일 SR센터는 지난 1년간 거둔 수익금 2억 5000만원 전액을 서울시 저소득층 자활사업인 ‘희망플러스통장’ 과 ‘꿈나래통장’ 의 지원금으로 기탁했다. 또한, 시내 초·중·고교와 롯데월드 등 놀이공원에서 수거한 폐휴대폰 처리 수익금 7300만원 전부를 서울장학재단 등을 통해 취약계층 100명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했다. 이처럼 SR센터는 서울형 예비 사회적 기업 중 공공성과 재정구조 투명화에 있어 대표적인 모범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SR센터의 출발은 사회적 공공성이다. 이들은 ‘누가 책임을 져야할 것인가?’ 라는 막연한 물음에 고용복지 활성화와 기업의 이익을 사회로 환원하여 답한다. 이들은 폐기물의 수집에서부터 분해, 수익창출 및 기부까지 철저한 관리를 통해 기업의 투명성을 확립하고 있다. 또한, 이형출 SR센터 기획실장은 사회적 회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예비 사회적 기업이 지역풀뿌리형 사회적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재정구조 투명화 그리고 이들을 바라보는 일부 사회구성원들의 편향적인 시각과 인식의 변화가 동시에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IV. CEO 인터뷰: SR센터 사업단장 김치현

연말연시 서울시 SR센터의 기부금 전달행사로 언론에 공개되었던 그 분, 아직은 CEO라는 이름이 어색한 김치현 SR센터 사업단장을 만났다. 그는 자원재활용에 관한 해박한 지식과 철학을 갖춘 사회적 기업가로 SR센터가 본연의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는 자원의 선순환 구조에 대한 서울시민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자치구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 필요

지난해 SR센터는 소형 폐가전과 폐핸드폰, 폐OA기기 2,600톤을 입고, 처리하였으며, 2011년 올해 목표를 3,000톤으로 상향 조정하고 폐기물 400톤 추가 확보 및 처리기술 향상 방안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김치현 단장은 여전히 배가 고프다. 이는 SR센터의 처리량이 서울시 전체 폐기물의 약 24%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김치현 단장은 SR센터를 통해 서울시가 에코시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폐기물 회수에 대한 자치구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SR센터는



[그림 5] SR센터 김치현 사업단장

향후 매년 폐기물 수거량의 30% 성장을 목표로 하여 2014년 SR센터 제2공장 건립을 계획 중이다. 또한, 나아가 전기전자 폐기물 천만대 회수 및 제 3공장 건립 등 거시적 목표를 단계적으로 달성하여 그 과정에서 지속적인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자원순환사업의 선도적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자치구 환경 관련 부서에서만 주로 관심을 가지는 반면 일반 구민이나 타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SR센터 역시 올해 홍보 예산을 확보하여 전기전자 폐기물의 자원화에 대한 서울시

민의 긍정적인 인식을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형 예비 사회적 기업에 대한 보다 장기적인 계획과 지원요청

SR센터는 설립 당시 2010월 12월 사회적 기업 인증을 목표로 하였으나, 지난해 그 시기를 올해 상반기로 조정하였다. 이는 센터 내부적으로 보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 향후 안정된 사회적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였다. 이처럼 예비 사회적 기업이 공고한 수익/환원체계와 고용 구조를 동시에 갖추는 것은 단시간에 이루어 질 수 없다는 것이 사회적 기업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특히, SR센터와 같이 환경이라는 특정한 분야에 한정된 사회적 기업의 경우 안정된 폐기물 수거체계와 지속적인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동력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장기적인 계획과 단계적인 지원도 병행되어야 한다.

장동렬 (재)함께일하는재단 사회적기업 설립운영지원팀장*은 서울형 예비사회적 기업의 최대 성과는 사회적 기업의 양적 확대와 지자체 중에서는 최초의 사회적 기

* 상술된 내용은 서울경제와의 인터뷰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장동렬의 '지역형 사회적기업으로 전환 이후의 전망과 과제', 이슈+(2010. 11)를 참고할 것.

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고 평가한다. 또한, 그는 지속가능한 서울형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체계와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서울형 예비 사회적 기업이 인건비 지원에 의존하여 사업을 유지하는 것보다 심사선정 과정에서부터 사업모델 및 실제 사업수행 능력에 대한 검증/모니터링 시스템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형 예비 사회적기업의 성공사례를 발굴을 위해 전략업종 선정 및 지역에 필요한 사회적 기업의 브랜드화가 필요하다는, 단시간의 사회적 기업 인증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등의 경직된 지원기간 조정을 지양하고, 장기적 지원을 통해 사회적 기업 전환 이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참고문헌

- 신경희(2010),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지원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장동렬(2010), 지역형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 이후의 전망과 과제, 이슈+
- 해럴드경제(2010), 서울내서 도시광산화 사업이 벌어진다.
- 해피플러스(2010), 재활용대안기업연합회가 일군 사회적 기업의 가치와 성과, 행복나눔재단
- 노동고용부 사회적기업 홈페이지, <http://www.socialenterprise.go.kr>
- SR센터 홈페이지, <http://www.srcenter.kr/>